



인도

로봇 산업: 성장의 출발선

인도 로봇 시장: 제조업·물류 중심의 자동화 수요 확대로 성장 초기 단계

인도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는 2025년 10,487대로 10년간 5배 이상 증가했다. 자동차를 중심으로 제조업 전반에서 자동화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성장으로 물류 로봇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다만 로봇 보급 수준은 아직 낮아 성장 초기 시장으로 평가되며, 피지컬 AI와 휴머노이드는 중장기 성장 분야로 판단된다.

핵심부품·제조 생태계 취약으로 로봇·피지컬 AI 경쟁력 제한적

인도는 풍부한 IT·엔지니어링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반도체·센서·감속기 등 핵심 부품의 공급망과 정밀 제조 역량은 취약하다. 특히 AI 모델과 GPU 등 업스트림 분야에서는 미국·중국과 기술 격차가 크다. 반면 소프트웨어·시스템 통합과 산업별 자동화 솔루션 등 다운스트림에서는 기존 인력과 비용 경쟁력을 활용한 성장이 기대된다.

인도 정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로봇 및 관련 첨단산업 육성 추진

인도 정부는 2023년 국가 로봇 전략 초안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로봇 연구·개발·제조 분야의 글로벌 허브 육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또한 AI 국가 육성사업, 반도체 육성사업, 전자부품 제조 지원제도를 통해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로봇 전략은 아직 초안 단계이며, 정책 지원이 실제 제조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인도 로봇 기업: 비상장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성장하며 사업 영역 확대

인도 로봇 산업은 상장된 전문기업이 제한적인 가운데 비상장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애드버브는 물류·제조 자동화와 휴머노이드 개발, 그레이오렌지는 AI 기반 로봇 운영 소프트웨어, 신러는 객체 인식·조작 기술에 집중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내수시장 성장과 기술 개발을 기반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나, 글로벌 경쟁력과 대규모 상용화 실적은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인도 로봇 밸류체인별 경쟁력 및 성장 가능성

밸류체인 (Value Chain)	현재 인도 경쟁력	미국	인도 성장 가능성
AI·파운데이션·VLA 모델	●	●●●●●	●●
GPU·AI 컴퓨팅	●	●●●●●	●●
센서·비전 핵심 부품	●●	●●●●	●●●
서보모터·감속기·액추에이터	●●	●●●●	●●●
로봇 하드웨어·완성품	●●	●●●●	●●●
로봇 소프트웨어·시스템 통합	●●●	●●●●●	●●●●
산업별 응용·서비스	●●●	●●●●	●●●●

자료: 언론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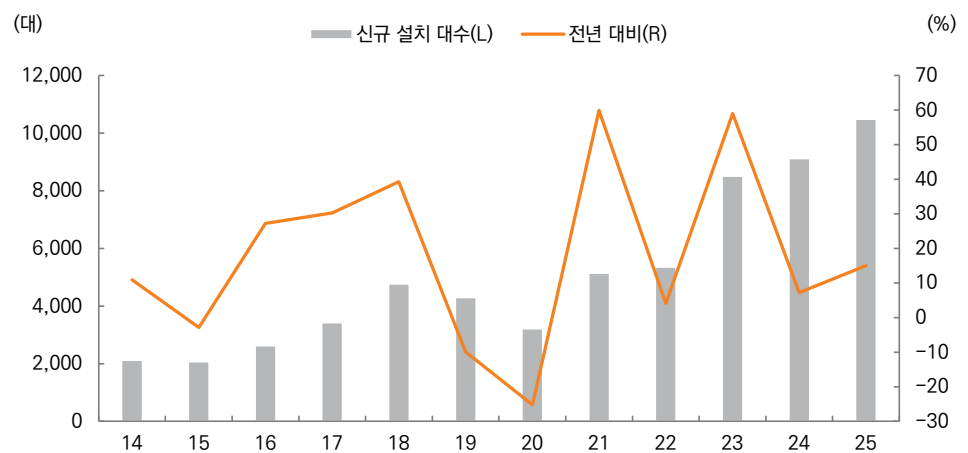
빠르게 성장하는 인도 로봇 수요

인도 로봇 시장은 아직 중국 등 주요국과 비교하면 규모가 작지만, 제조업 자동화 확대를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국제로봇연맹(IFR)에 따르면 인도의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는 2025년 10,487대로 10년간 5배 이상 증가하면서 인도는 연간 설치 기준 세계 6위 시장으로 올라섰다.

다만 절대적인 로봇 보급 수준은 아직 낮다. 2024년 전 세계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는 54.2만대로 이 가운데 아시아가 74%, 중국이 54%를 차지했다. 같은 해 인도의 산업용 로봇 운영대수는 52,570대로 세계 10위에 머물렀다.

따라서 현재 인도는 로봇 보급이 성숙 단계에 진입한 시장이라기보다 제조업 성장과 함께 자동화 투자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성장 초기 시장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그림 1. 인도 산업용 로봇 연간 신규 설치 대수



자료: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IFR), World Robotics 2025,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자동차 중심에서 제조업 전반으로 수요 확대

현재 인도 산업용 로봇의 최대 수요처는 자동차 산업이다. 2024년 자동차 산업의 신규 설치는 4,070대로 전체의 45%를 차지했다. 특히 완성차뿐 아니라 자동차 부품업체의 자동화 투자가 확대되면서 로봇 수요가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자동차 이외에도 플라스틱·화학, 금속·기계, 전자·전기 등 다양한 제조업에서 로봇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인도 정부가 생산연계 인센티브(Production Linked Incentive, PLI)를 통해 전자, 자동차·부품 등 14개 전략산업의 현지 생산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도 중장기 자동화 수요에 긍정적이다. PLI는 로봇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정책은 아니지만, 제조설비 투자와 생산공정 고도화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로봇 수요 확대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제조업과 함께 물류·창고 역시 주요 수요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와 유통산업 성장, 대형 물류센터 확대에 따라 자율이동로봇(AMR), 물류 분류 로봇, 창고 자동화 시스템 등의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의료·농업·건설·국방 등으로도 로봇의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는 산업 자동화 중심, 피지컬 AI는 다음 단계

현재 인도 로봇 시장의 중심은 산업용 로봇과 협동로봇(Cobot), 자율이동로봇(AMR), 창고 자동화, 시스템 통합 등 기존 산업 자동화 영역이다. 실제 인도 로봇 기업들의 상용화와 매출 역시 대부분 이들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

반면 피지컬 AI와 휴머노이드는 아직 본격적인 상용화 시장이 형성된 단계는 아니다. 따라서 인도 로봇 시장은 현재 제조업과 물류를 중심으로 기존 자동화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피지컬 AI를 활용한 지능형 로봇으로 기술 영역이 확장되는 과정에 있다고 판단된다. 향후 인도 로봇 산업의 성장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내수시장 확대가 인도 기업의 공급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냐는 점이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인도 로봇 산업의 밸류체인별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도 로봇 밸류체인별 경쟁력 및 성장 가능성

로봇 산업의 밸류체인은 크게 AI 모델 → GPU·AI 컴퓨팅 → 센서·모터·감속기 등 핵심부품 → 완성 로봇 → 소프트웨어·시스템 통합 → 산업별 응용·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

인도는 로봇과 피지컬 AI의 수요시장으로서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구성하는 핵심 기술과 부품을 공급하는 국가로서의 경쟁력은 아직 낮은 편이다.

특히 AI 모델과 GPU, 센서, 액추에이터 등 로봇 밸류체인의 업스트림 분야에서는 미국·중국과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실제 인도 정부도 2026년 로봇 산업 전략 논의에서 액추에이터, 센서, 반도체, 정밀기어 등 핵심 하드웨어와 부품 생태계가 취약하다는 점을 주요 과제로 지적했다.

반면 다운스트림으로 갈수록 상황은 달라진다. 인도는 소프트웨어와 엔지니어링 인력이 풍부하고 제조업과 물류·유통 등 로봇을 실제로 활용할 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중국과 AI 모델이나 핵심 하드웨어 분야에서 직접 경쟁하기보다는 가격 경쟁력을 갖춘 로봇 제조, 로봇 소프트웨어·시스템 통합, 특정 산업에 특화된 로봇과 자동화 솔루션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

표 1. 인도 로봇 밸류체인별 경쟁력 및 성장 가능성

밸류체인 (Value Chain)	현재 인도 경쟁력	미국	중국	인도 성장 가능성
AI·파운데이션·VLA 모델 (AI/Foundation·VLA Model)	●	●●●●●	●●●●	●●
GPU·AI 컴퓨팅 (GPU/AI Compute)	●	●●●●●	●●●	●●
센서·비전 핵심 부품 (Sensor·Vision Components)	●●	●●●●	●●●●●	●●●
서보모터·감속기·액추에이터 (Servo·Motor·Reducer·Actuator)	●●	●●●●	●●●●●	●●●
로봇 하드웨어·완성품 (Robot Hardware/OEM)	●●	●●●●	●●●●●	●●●
로봇 소프트웨어·시스템 통합 (Robotics SW/Integration)	●●●	●●●●●	●●●●	●●●●
산업별 응용·서비스 (Industrial Applications)	●●●	●●●●	●●●●●	●●●●

자료: 언론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인도 로봇 산업, 인재와 생태계의 간극

인도는 세계적인 수준의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러한 인적 경쟁력이 아직 로봇·피지컬 AI 산업의 공급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인도가 지난 30여 년간 IT서비스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서비스 중심으로 성장한 반면, 로봇 산업에 필요한 정밀 제조업과 핵심부품 생태계는 상대적으로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피지컬 AI는 AI와 소프트웨어만으로 구현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니다. 로봇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실제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반도체와 센서뿐 아니라 서보모터, 감속기, 엔코더, 액추에이터, 컨트롤러 등 다양한 정밀부품이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부품은 설계 기술뿐 아니라 소재·열처리·정밀가공·품질관리와 양산 경험이 축적돼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결국 인도는 우수한 인력은 풍부하지만 이를 실제 로봇 제품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제조 기반과 공급망이 부족했다.

중국과의 차이도 여기에서 나타난다. 중국은 로봇 기업뿐 아니라 모터·감속기·센서·PCB·반도체·배터리·정밀가공 등 관련 산업이 집적돼 있어 제품 개발에서 부품 조달과 시제품 제작, 양산까지 연결되는 공급망을 갖추고 있다. 반면 인도는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제조업의 밸류체인과 핵심부품의 현지 조달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자본의 성격도 중요한 차이이다. 소프트웨어 기업은 상대적으로 적은 초기자본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지만, 로봇 기업은 시제품 제작과 반복적인 설계 변경, 성능 검증, 생산설비 구축과 현장 테스트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단기간의 성장을 추구하는 자본보다 장기간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자본과 산업 생태계가 중요하다.

다만 풍부한 엔지니어링 인력은 향후 인도 피지컬 AI 산업의 중요한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다. 특히 인도가 단기간에 반도체·감속기·센서 등 업스트림 핵심기술에서 미국·중국과 경쟁하기보다는 기존 IT·엔지니어링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로봇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통합, 산업별 자동화 솔루션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중장기적으로 핵심부품의 현지 생산 확대 또는 국산화와 제조 생태계 확대가 병행된다면 현재의 인적 경쟁력이 피지컬 AI 공급 경쟁력으로 연결될 여지도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인도 정부, 로봇 산업을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육성

인도 정부는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에도 나서고 있다. 제조업이 성장하면서 공장 자동화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는 로봇을 직접 설계하고 생산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을 인도 안에 구축하겠다는 것이 핵심 목표다.

인도 전자정보기술부(MeitY)는 2023년 「국가 로봇 전략 초안(Draft National Strategy on Robotics)」을 발표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인도를 제조업·헬스케어·농업·국가안보 분야의 로봇 선도국으로 육성하고, 장기적으로 로봇의 연구·설계·개발·제조를 아우르는 글로벌 허브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R&D, 시험·실증, 상용화·공급망 구축, 로봇 도입 확대를 4대 정책 축으로 제시했다.

또한 정책 실행을 전담할 로봇 혁신 전담기구(Robotics Innovation Unit, RIU)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 이를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로봇산업 육성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다만 로봇 설치 대수나 시장점유율, 국산화율, 투자금액 등 구체적인 정량 목표는 제시하지 않았다.

AI·반도체·전자부품까지 함께 키운다

최근 정책의 특징은 로봇만 따로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AI와 반도체, 전자부품 등 로봇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반 산업도 함께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도 AI 국가 육성사업(IndiaAI Mission)을 통해 AI 컴퓨팅 인프라와 자체 AI 모델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도 반도체 육성사업(India Semiconductor Mission, ISM)을 통해 반도체 설계부터 제조·패키징까지 전 밸류체인을 육성하고 있다. 전자부품 제조 지원제도(Electronics Component Manufacturing Scheme, ECMS)를 통해서는 핵심 전자부품의 인도 내 생산 확대와 국산화를 지원하고 있다.

각 정책은 AI 인프라, 반도체, 전자부품이라는 서로 다른 영역을 담당하며 인도의 첨단 제조업 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하고 있다. 각 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도 정부는 2024년 3월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도 AI 국가 육성사업’을 승인했다. 모디 총리가 주재한 연방 내각이 승인한 국가 차원의 종합 AI 육성정책으로, 향후 5년간 총 1,037억 루피를 투입해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부터 자체 AI 모델 개발, 데이터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스타트업 지원까지 AI 생태계 전반을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분야별로는 가장 많은 456.3억 루피를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에 배정했으며,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과 AI 스타트업 지원에도 각각 197억 루피와 194억 루피를 투입할 계획이다.

표 2. 인도 AI 국가 육성사업 주요 분야별 투자 계획

분야	예산(억 루피)	주요 내용
AI 컴퓨팅 인프라 (AI Compute)	456.3	기업·연구자가 활용할 수 있는 GPU 인프라 확보
파운데이션 모델 (Foundation Models)	197.1	인도 자체 AI·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스타트업 자금 지원 (Startup Financing)	194.3	AI 스타트업 자금 지원
AI 인재 양성 (FutureSkills)	88.3	AI 전문인력 양성
AI 활용 확대 (AI Application)	68.9	의료·농업·정부 등 AI 활용 확대
AI 데이터 구축 (Datasets)	20.0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안전·신뢰 AI (Safe & Trusted AI)	2.0	AI 안전·책임·규제 기반 구축

자료: 인도 정부, 언론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인도 AI 국가 육성사업
(IndiaAI Mission)

인도 반도체 육성사업(ISM)

인도 반도체 육성사업(India Semiconductor Mission, ISM)은 반도체 설계부터 제조·패키징까지 인도 내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육성사업이다. 인도 정부는 2021년 12월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육성을 위해 총 7,600억 루피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승인했으며, 반도체 제조시설(Fab)과 ATMP·OSAT 등 후공정 시설에 프로젝트 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하고 반도체 설계기업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2026년 2월 기준 2개 Fab과 8개 패키징 시설 등 총 10개 프로젝트가 승인됐으며, 이들 프로젝트의 계획 투자액은 총 1.6조 루피에 달한다. 이후 인도 정부는 2026년 7월 총 1조2,750억 루피 규모의 Semicon 2.0을 추가 승인해 반도체 설계, 제조·패키징뿐만 아니라 장비·소재, R&D 및 전문인력 양성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표 3. 인도 반도체 육성사업 주요 분야별 지원 계획

인도 반도체 육성사업 주요 분야별 지원 계획	지원 내용	주요 내용
반도체 제조 (Semiconductor Fabs)	프로젝트 비용 최대 50%	실리콘 CMOS 기반 반도체 웨이퍼 제조시설 구축 지원
디스플레이 제조 (Display Fabs)	프로젝트 비용 최대 50%	TFT LCD·AMOLED 등 디스플레이 제조시설 구축 지원
반도체 후공정 (Compound Semiconductors·ATMP·OSAT)	프로젝트 비용 최대 50%	화합물·실리콘 포토닉스 반도체 및 조립·테스트·패키징 시설 구축 지원
반도체 설계 (Design Linked Incentive)	설계비·매출 연계 인센티브	반도체 설계기업의 제품 설계 및 상용화 지원
반도체 생태계 고도화 (ISM 2.0)	R&D·기술개발 지원	산업 주도형 R&D, 핵심 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강화

자료: 인도 정부, 언론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전자부품 제조 지원제도(ECMS)

전자부품 제조 지원제도(Electronics Component Manufacturing Scheme, ECMS)는 완제품 조립에 집중된 인도 전자산업의 밸류체인을 핵심 부품·소재까지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인도 정부는 2025년 3월 총 2,292억 루피 규모의 ECMS를 승인해 PCB, 수동부품, 전기기계 부품, 서버어셈블리, 카메라 모듈 등 핵심 전자부품의 인도 내 생산 확대와 국산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후 기업들의 투자 수요가 확대되면서 정부는 FY27년 예산에서 ECMS 지원 규모를 4,000억 루피로 확대했으며, 2026년 8월까지 총 106개 프로젝트, 6,955억 루피 규모의 계획 투자가 승인됐다. 이를 통해 인도 정부는 핵심 전자부품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전자산업의 현지 공급망 구축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표 4. 인도 전자부품 제조 지원제도(ECMS) 주요 지원 분야

인도 전자부품 제조 지원제도(ECMS) 주요 지원 분야	지원 대상	주요 내용
디스플레이 모듈 (Display Module Sub-Assembly)	디스플레이 모듈 부품·서버어셈블리	디스플레이 관련 핵심 부품의 인도 내 생산 확대
카메라 모듈 (Camera Module Sub-Assembly)	카메라 모듈 부품·서버어셈블리	스마트폰·전자기기용 카메라 모듈 공급망 구축
인쇄회로기판 (Multi-layer PCB)	다층 PCB	전자제품 핵심 회로기판의 현지 생산 확대
수동 전자부품 (Passive Components)	저항기·커패시터·인덕터 등	기초 전자부품의 생산 확대 및 수입 의존도 축소
전기기계 부품 (Electro-mechanicals)	커넥터·스피커·마이크·진동모터 등	전자제품용 전기기계 부품의 현지 공급망 확대
핵심 소재·설비 (Supply Chain Ecosystem)	전자부품용 소재·제조설비	부품 생산에 필요한 소재·설비의 인도 내 공급망 구축

자료: 인도 정부, 언론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정책 지원은 시작, 실제 경쟁력 확보에는 시간이 필요

정부의 정책 방향은 분명하지만 정책 목표와 현재 인도 로봇 산업의 경쟁력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인도는 AI·소프트웨어와 엔지니어링 인력에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로봇의 핵심 부품과 정밀 제조, 대량생산 경험에서는 아직 중국·일본·한국 등 주요 로봇 제조국과 차이가 있다.

결국 인도 로봇 산업의 핵심 과제는 “로봇을 많이 사용하는 나라”에서 “로봇과 핵심 기술을 직접 만드는 나라”로 발전할 수 있느냐에 있다. 정부의 AI·반도체·전자부품·로봇 육성정책은 이를 위한 기반을 만드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에는 이러한 정책 지원이 실제 부품 국산화와 인도 로봇 기업의 성장으로 연결되는지가 중요할 전망이다.

인도 주요 로봇 기업 현황

인도 로봇 산업은 아직 성장 초기 단계로, 인도 증시에 상장된 로봇 전문기업은 제한적이다. 대표적인 로봇 관련 상장기업으로는 스위스 산업용 전력·자동화 설비 기업 ABB의 인도 법인인 에이비비 인디아(ABB India)가 있다. 에이비비 인디아는 산업용 로봇과 자동화 솔루션을 공급하는 로봇(Robotics) 사업부를 운영해 왔으며, 2024년 기준 해당 사업부의 매출 비중은 전체 매출의 3.7%를 차지했다.

그러나 2025년 10월 스위스 ABB 본사는 로봇 사업의 독립 상장 계획을 철회하고, AI와 로봇 기술의 결합을 통한 성장 기회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로봇 사업을 소프트뱅크 그룹에 53.75억 달러의 기업가치로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인도 로봇 산업에서는 상장기업보다 기술 개발과 사업 확장을 추진하는 비상장 스타트업들이 주요 성장 주체로 부각되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애드버브, 그레이오렌지, 신러 등이 있으며, 이들 기업은 물류자동화, 로봇 운영 소프트웨어 및 객체 인식·조작 기술 등에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애드버브 테크놀로지스(Addverb Technologies) (비상장)

기업 개요

애드버브는 2016년 설립된 인도의 로봇·자동화 분야 비상장 스타트업으로, 자율이동로봇 (AMR), 분류로봇, 자동입출고 시스템(ASRS) 및 창고 운영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하고 있다. 로봇과 소프트웨어를 결합해 물류센터의 상품 보관·이송·분류·출고 등 주요 공정을 자동화하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한다.

물류자동화에서 Physical AI·휴머노이드로 기술 영역 확대

주요 제품은 자율이동로봇 다이나모(Dynamo), 자동입출고 로봇 벨로체(Veloce), 협동로봇 싱크로(Syncro) 등이다. 다이나모는 창고와 제조시설에서 자재를 운반하고, 벨로체는 상품의 보관과 인출을 자동화한다. 최근에는 산업시설 점검용 사족보행 로봇 트랙커(Trakr)와 물류·제조 현장의 반복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바퀴형 휴머노이드 엘릭시스-W(Elixix-W)를 공개했으며, 보행형 휴머노이드도 개발하고 있다.

릴라이언스 투자 기반의 제조 역량 강화 및 차세대 로봇 사업 확장

릴라이언스 리테일 벤처스는 2022년 애드버브에 1억 3,200만 달러를 투자해 당시 지분 54%를 확보했다. 애드버브는 펄시코, 힌두스탄 유니레버, 릴라이언스, DHL 등을 고객사로 확보했으며, 제조시설과 해외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2026년에는 엔비디아의 시뮬레이션 및 강화학습 기술을 활용한 로봇 개발과 추가 자금조달을 추진하며 휴머노이드 등 차세대 산업용 로봇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그림 2. 보행형 휴머노이드 엘릭시스(Elixix)



자료: Addverb Technologies,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산업시설 점검용 사족보행 로봇 트랙커(Trakr)



자료: Addverb Technologies,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레이오렌지(GreyOrange) (비상장)

기업 개요

그레이오렌지는 물류센터와 유통 현장의 자동화를 위한 로봇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인도의 비상장 스타트업이다. 핵심 플랫폼인 그레이매터(GreyMatter)를 통해 주문·재고·로봇 작업을 통합 관리하며, 서로 다른 제조사의 로봇과 자동화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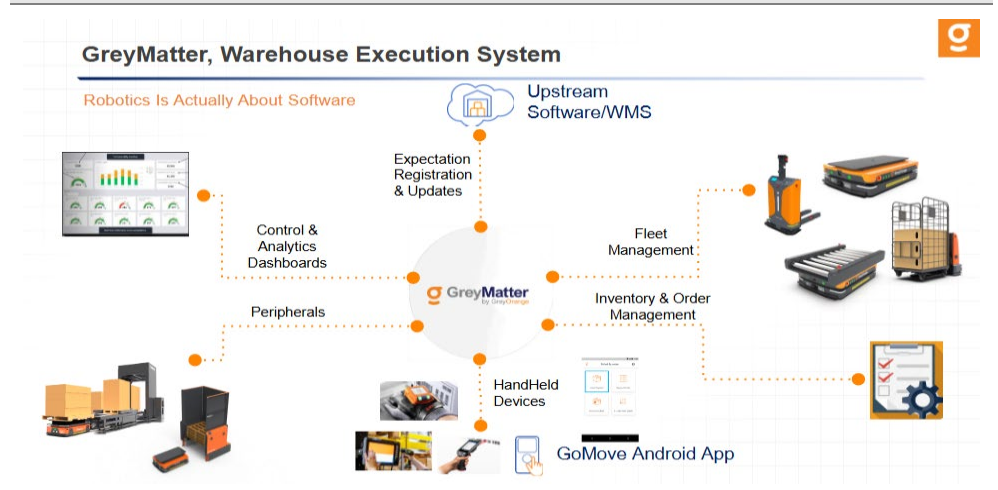
자율이동로봇과 AI 기반 운영 소프트웨어를 통한 물류자동화 고도화

주요 제품은 레인저(Ranger) 계열의 자율이동로봇으로, 상품 운반·피킹·분류 등에 활용된다. 레인저 RTP는 상품이 보관된 선반을 작업자에게 운반하고, 레인저 어시스트는 작업자의 피킹과 상품 이송을 지원한다. 그레이매터는 주문량과 재고 위치, 로봇 운행 상태를 분석해 작업 순서와 이동 경로를 최적화하며, 유통 매장용 지스토어(gStore)를 통해 재고 관리 자동화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글로벌 유통시장 확대 및 다중 로봇 운영 플랫폼 경쟁력 강화

그레이오렌지는 2023년 12월 시리즈 D 투자 라운드에서 1억 3,500만 달러를 조달했다. 2024년 11월 회사 발표 기준 지스토어를 38개국 1,900개 이상의 매장에 도입했으며, 제약·식음료 등으로 고객 기반을 확대했다. 2025년에는 릴레이 픽(Relay Pick) 솔루션을 공개하고 구글 클라우드와 AI 기반 로봇 내비게이션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등 다중 로봇 운영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림 4. GreyMatter 통합 운영 플랫폼



자료: GreyOrang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신러(CynLr) (비상장)

기업 개요

신러는 2019년 출범한 인도 벵갈루루 기반의 비상장 로봇 기술 스타트업으로, 로봇이 처음 접하는 물체도 인식하고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객체지능(Object Intelligence, OI)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핵심 기술인 CLX 비전 시스템을 기반으로 인도과학원(IISc)과 시각 인지 및 감각운동 학습 기술을 공동 연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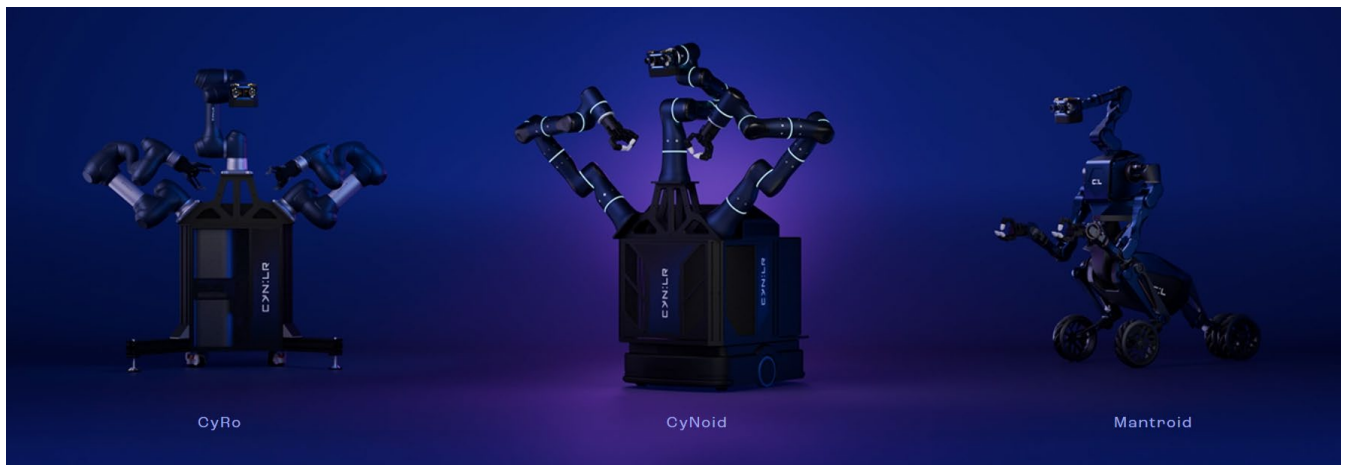
객체지능 기반의 비정형 물체 인식 및 범용 로봇 조작 기술 개발

CLX는 물체의 형태와 표면 특성을 분석하고, 시각 정보와 힘 피드백을 결합해 로봇이 물체를 집거나 조작하는 동작을 조정한다. 회사는 처음 접하는 물체도 10~15초 내에 파지 방법을 학습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이는 회사가 제시한 기술 성능이다. 대표 제품인 사이로(CyRo)는 두 개의 로봇팔로 부품을 분류·조립하며, 이동형 시노이드 7A(Cynoid 7A)는 7축 로봇팔 2개를 활용해 CNC 장비 관리와 자동차·전자부품 조립 등을 수행하도록 설계됐다.

객체지능 기술 고도화 및 제조공정 자동화 적용 확대

신러는 부품의 위치와 방향이 달라져도 로봇이 별도의 재설정 없이 작업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2026년 객체지능 플랫폼과 로봇 조작 기술을 시연했으며, 자동차·반도체 제조 분야로 적용 가능성을 확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부품을 하나의 생산라인에서 처리하는 범용 제조자동화를 목표로 하지만, 대규모 상용화 실적은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그림 5. 신러(CynLr)의 로봇 제품 포트폴리오(CyRo, CyNoid, Mantroid)



자료: CynLr,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주: Mantroid는 출시 전 단계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